

일본, 내수 성장 한계점에 ... 정책적 개입이 자율성장 “방해”

일본의 석유화학업은 50년대 후반 창설이후 세번째 불황을 맞이하고 있다. 75년과 80년 2회의 불황은 성장기에서 추추었다고 말할 수 있고,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극히 단순하다고 할수도 있다.

다시말해, 설비과잉이 전통적으로 잠재요인이었다고 해도, 두번의 불황은 석유가격의 급상승이 직접 원인이었다. 이 때에는 원인이 확실했고, 세계 각국 모두 같은 입장이었기 때문에, 영향 예측도 어느 정도까지 세울 수 있었으며, 대책도 어느 정도는 가능했다. 당시는 일본때문에 석유화학산업이 성장기에 있었기 때문에 불황 탈출에 강하게 대처할 수 있었다.

현재의 불황도 현상만으로 보면 종래와 같이 설비과잉에 의한 수급균형의 실패와 시세 하락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완전히 다른 환경아래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이유는 냉전체제의 종식에 따른 세계의 경제·산업구조의 변화와 개발도상국의 발전에 따른 석유화학 산업의 국산화라고 하는 거시적인 기본구조의 변화가 있고, 그 연장선상에 자동차·가전 등 주요 산업의 해외 이전에 따른 내수의 감소와 석유화학제품 무역균형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일본 석유화학제품의 시장이 일시적이 아닌 구조적으로 축소되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 즉, 일본의 석유화학산업은 처음으로 진짜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석유화학 수요구조

일본 석유화학의 미래를 생각할 때, 최대의 열쇠는 수요 동향이다. 최초 70년 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수요 추이와 변동요인을 알아보면, 석유화학 제품은 기본적인 성격에 따라 2가지로 분리할 수 있다.

첫째, 이전부터 존재한 화학제품으로, 공정전환에 따라 단순히 원료가 석탄및 그외의 유기재료에서 석유로 변한 것을 들 수 있다. 이 경우는 과거와 같이 화학업 자체가 주요 시장으로 되어있다. 둘째, 합성수지와 합성섬유로 대표되는 고분자 제품으로 종래의 화학산업에 있어서 완전히 새로운 구조재로서 거대시장을 형성하고, 산업의 내용을 크게 변화시켰다.

일본이 본격적으로 석유화학 시대를 열게된 60년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30여년간의 흐름은 우선 3개나 4개로 분리할 수 있다.

●제1기는 60년대부터 제1차 오일쇼크가 일어난 73년에 이르는 소위 고도성장 시대이다. ●제2기는 73년부터 83년 까지로, 이동안에는 2회의 오일쇼크를 포함 일반경제와 함께 석유화학제품 수급이 크게 오르락 내리락했던 변동시대이다. ●제3기는 83년부터 지금까지로 여기서는 90년대까지 소위 버블경기에 의한 재성장 시대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91년 이후가 냉전이후(버블 경제이후)에 기준해 제4기, 전환시대가 될 수도 있다.

■ 제1기(1960~1973년)

최종 수요분야에서 합성수지 합성섬유 등 범용 석유화학제품은 새로운 물성을 추가시켜도 그 본질에 있어서는 기존 재료의 대체품이라는 것 이에는 변함이 없다. 따라서, 그 수요는 제품 가격과 국민의 소득 수준에 영향을 받게 된다.

석유화학제품이 일본에서 국산화된 50년대 말에는 PE가 당시 가격으로 KG당 1000엔을 넘었으나, 이 상태가 그대로 계속되었다면, 필름과 성형재료로서 아무리 뛰어난 모성을 갖는다 해도 PE가 현재처럼 일반 수요시장에서 대량으로 소비되지는 못했으리라 생각된다.

그러나, 60년대에 중동의 유전이 개발되고 석유가격이 저수준으로 안정된 결과 석탄에서 석유로의

에너지 전환이 진행, 고도성장 시대를 가져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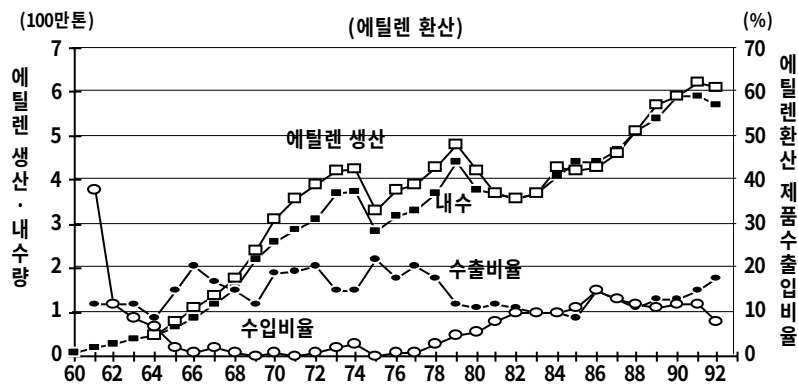
동시에 석유화학 산업에서는 나프타 가격의 저하, 대규모 공장 건설과 고조업율에따른 운전 등으로 제품가격이 대폭 인하되고, 수요 확대에 박차를 가했다. 실제, 나프타 가격은 50년대말 kℓ당 8000엔에서 65년에는 5900엔으로 하락되었고, 그후는 다소 상승했으나 오일쇼크 직전까지 7000엔에 멈추고 말았다.

그리고 에틸렌 가격은 50년대 말 kℓ당 90엔 이었으나, 65년에는 42엔, 70년대 중반에는 29엔으로 1/3 까지 저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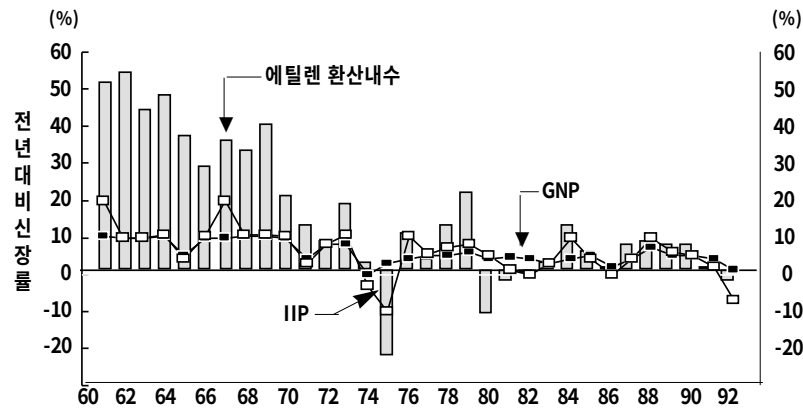
이 결과, 에틸렌 생산량은 60년의 연산 8만톤에서 73년 417만톤까지 급성장했고, 에틸렌 환산 내수량도 10만톤에서 309만톤으로 증가했다.

제1기는 원유가격에 거의 변화가 없고, 제품가격은 꾸준히 하락했으며 경제 또한 연평균 실질성장율이 9%를 넘는 전형적인 수요 성장기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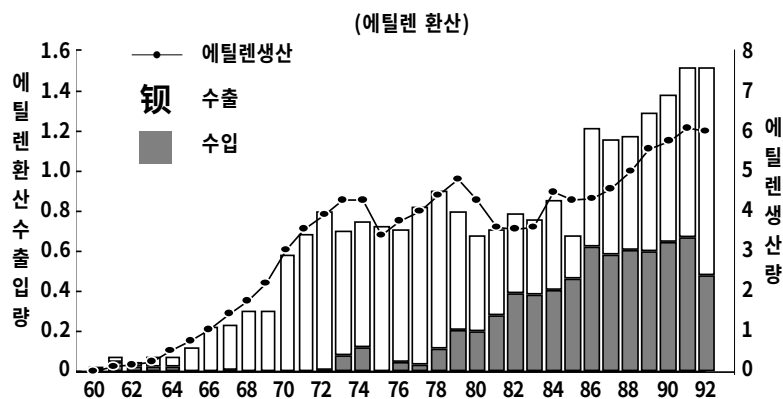
【그림1】 일본의 석유화학제품 수급추이



【그림2】 일본의 석유화학제품 내수와 경제성장의 상관관계



【그림3】 일본의 석유화학제품 무역추이



■ 제2기(1973~83년)

제1차 오일쇼크가 일어난 것은 73년 10월이었다. 이 때에는 원유 수출가격이 배럴당 3달러에서 11.6달러로 상승했다. 일본의 수입원가 가격은 73년 전반기의 kℓ당 4900엔 전후에서 연말 약 9000엔으로, 74년 후반부터는 2만엔을 넘기에 이르렀다.

나프타 가격은 국제 시장의 불안감에 앞서 인상현상이 빠르게 일어나고, 73년 초5000엔대 중간이었던 수입가격이 연말 1만2000엔을 넘고, 74년 중반 이후 2만7000~2만8000엔에 이르렀다.

일본정부가 규제하고 있던 내수 가격 73년10월 8000엔, 12월 1만2000엔, 74년3월 2만엔, 10월 2만5000엔으로 인상되었다.

에틸렌 가격도 원

로 나프타에 연등해 KG당 30엔에서 73년10월 42엔으로 상승했고, 그후에도 거의 1년마다 인상되어 74년말에는 86엔이 되고, 76~77년에는 최고 100엔까지 다달았다. 그후, 엔고가 진행되어 나프타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했고, 78년말 80엔까지 떨어졌다.

이 결과, 석유화학제품 수요는 73년 후반부터 74년 전반에 걸쳐 가수요가 발생되고, 생산량 만이 아니라 내수용 출하도 74년 최초로 절정에 달해 에틸렌 환산 약 370만톤을 기록했다.

그러나, 75년에 들어 내수의 침체로 생산·내수출하 등이 전년대비 마이너스 20%로 급락했고 그후 서서히 회복했으나 전체적으로 73~74년의 수준까지 돌아온 것은 78년에 이르러서였다.

이동안 실질 GNP는 74년 0.8%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으나, 75년에는 2.9%의 신장을 보였던 73년 수준을 넘고, 그후에도 순조로운 성장을 계속했다.

광공업 전체 생산의 움직임은 석유화학 산업보다도 6개월에서 1년 빠르게 변화해 74년~75년 2년 연속 저하되었고, 77년 간신히 73년 수준으로 돌아갔다.

수요가 회복국면으로 전환하기 시작한 것은 78년 12월부터 79년도 1월에 걸친 오일쇼크였다. 이 때에는 세계경제가 호황의 문턱에 들어섰고, 석유 수요가 증가추세였으며 이란혁명을 발단으로 산유국 측이 정책적으로 원유 공급량을 감축하는 등으로 그 영향은 1차 파동보다 훨씬 컸다.

이 결과, 에틸렌센터 12사 석유화학 부문의 경상이익은 79년 1000억엔을 넘었으나, 81년에는 580억엔의 손실을 계상할 정도로 석유화학 제품의 수급 균형이 악화됐다. 이것은 제품가격의 폭등에 의해 움추러진 일본 시장에 수입품이 급증하고, 제품 시황과 조업율이 동시에 저하한 것이 원인이었다.

석유화학제품의 내수출하는 79년 가수요 발생으로 대폭 증가했고, 80년에는 그 반동으로 격감했으며 83년 회복 조짐을 보일 때까지 극심한 상황이 계속 되었다. 그러나, 실질 GNP는 그동안 평균적으로 3%대의 성장을 계속했다. 광공업 생산지수는 전년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81년 1%, 82년 0.3%로 저조했다.

■ 제3기(1983~1990년대)

제2차 오일쇼크의 결과, 82년 수입 원유 가격은 kℓ 당 5만4000엔, 나프타 가격은 5만7000엔까지 상승했으나, 83년 부터는 세계적인 수요감소로 하락하기 시작했고, 86년에는 쇼크전의 가격수준까지 하락했다.

석유화학제품 수요도 83년 플러스로 전환된 이후 80년대내내 연평균 실질 경제성장률 4.6%를 상회하는 6.6%의 신장을 나타내 새로운 설비투자의 의욕을 생성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그러나, 90년대에 들어 정체되기 시작해, 92년에는 10년만의 전년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그리고, 이 기간의 큰 특징으로서 석유화학제품의 수출입이 대폭 변화된 것을 들 수 있다.

제3기를 통해 실질GNP 혹은 GDP는 86년과 92년 소폭 감소했지만 일관된 성장을 계속했다. 89~90년과의 연평균 성장률은 각각 4.2%, 4.0%로 83~90년 사이 4.6%의 신장을 나타냈다. 광공업 생산지수는 86년 전년대비로 소폭 마이너스가 되었고, 92년에는 마이너스 6%로 75년이후 대폭적인 감소를 기록했다. 93년에도 2년 연속 감소했다.

석유화학 무역

일본의 석유화학무역은 초기의 일시를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수출형이고, 수출 확대가 일본 석유화학 산업성장에서 큰 역할을 해 왔다.

지금까지 석유화학 제품이 수입초과를 기록한 것은 창설기인 62년까지와 85-88년의 급격한 엔고시기의 2회뿐으로, 그 이외는 항상 커다란 수출초과를 계속해 왔다.

석유화학 산업이 본격화된 것은 에틸렌 생산이 연간100만톤에 달한 60년대 후반부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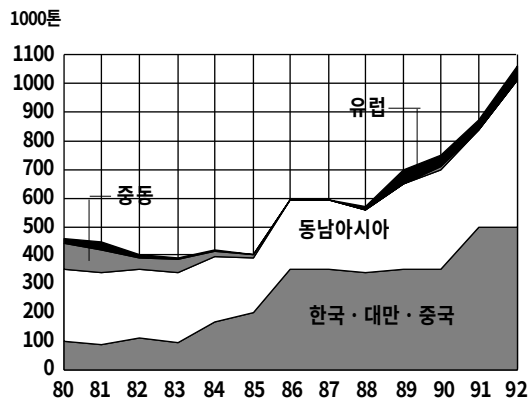
석유화학제품 수요는 에틸렌 환산량으로 65년의 12만톤에서 70년 57만톤, 75년 73만톤, 77년에는 최고 80만톤으로 급속하게 성장했다.

특히, 30만톤규모 에틸렌 설비를 차례로 건설한 70년대에는 급속하게 수출이 증가되고, 77년에는 에틸렌 환산으로 80만톤, 생산량의 20%를 넘는 제품이 수출되었다. 이러한 수출이 없었다면 이 시기의 평균 설비가동률은 60%로 하락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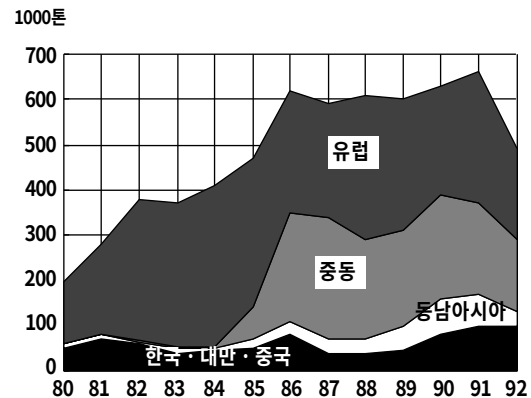
그러나 80년대 들어 나프타 가격이 5만엔 수준까지 폭등한 결과, 80년대 중반에는 40만톤 전후까지 감소했다. 회복은 나프타 가격이 떨어진 80년대 후반이다. 90년 이후에는 생산능력이 증가하는 한편 내수 정체가 계속돼 수출은 대폭 증가했다.

한편, 수입은 제1차 오일쇼크로 가수요가 폭발한 74년 13만톤까지 증가한 것을 제외하면, 70년대 후반까지는 거의 수천톤에서 수만톤으로 많지 않았다. 그 후에는 나프타 가격의 상승과 축을 같이해 80년대 초반 20만톤에서 84년에는 40만톤을 넘었고, 80년대 후반에는 60만톤으로 증가했다. 이때문에 석유화학 창업이후 25년만인 85~88년사이에는 석유화학제품의 순수입국이 되는 큰 변화가 일어났다. 원유 가격의 급상승으로 수입제품의 일부인 EDC, EG, SM등의 중간제품은 완전히 일본 시장에 정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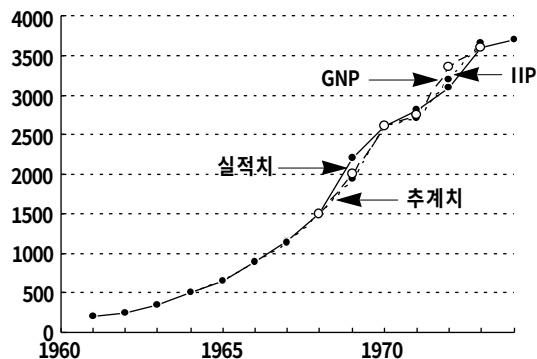
【그림4】 일본의 석유화학제품 수출대상국



【그림5】 일본의 석유화학제품 수입대상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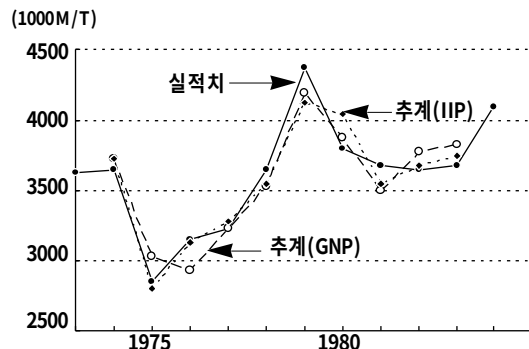


【그림6】 일본의 에틸렌 내수추계(제1기)



주) ED : 에틸렌 내수량 GNP : 85년 기준 IIP : 90년 기준
 NRPY : 전년 실질국내나프타가격
 $\bullet \text{ Log ED} = -0.405 + 1.7279 \text{ Log GNP} - 0.1071 \text{ Log NRPY}$
 결정계수 = 0.9975 DW비 = 2.568
 $\bullet \text{ Log ED} = 5.488 + 0.9249 \text{ Log GNP} - 0.1570 \text{ Log NRPY}$
 결정계수 = 0.9977 DW비 = 2.300

【그림7】 일본의 에틸렌 내수추이(제2기)



주) ED : 에틸렌 내수량 GNP : 85년 기준 IIP : 90년 기준
 NRPY : 전년 실질국내나프타가격
 $\bullet \text{ Log ED} = 3.045 + 0.9769 \text{ Log GNP} - 0.0532 \text{ Log NRPY}$
 결정계수 = 0.9706 DW비 = 1.353
 $\bullet \text{ Log ED} = 5.203 + 0.7993 \text{ Log GNP} - 0.0293 \text{ Log NRPY}$
 결정계수 = 0.9889 DW비 = 2.224

나프타 가격이 폭락했을 때도 수입량은 계속 증가했고, 감소된 것은 내수 정체가 극심했던 92년부터였다. 이 수입 감소는 내수제품의 경쟁력이 회복한 결과라기 보다는 내수의 감소가 최대 원인이었다.

수입은 초기에는 북미지역에서, 80년대 초반에는 중남미, 구유럽이 합류했으나, 그 비율은 적었다. 80년대 후반부터는 큰 변화가 일어나 나프타의 수입 대상국이었던 사우디가 석유화학제품의 최대 수입 대상국이 되었다. 90년대에 들어와서는 한국제품이 증가하고 있다.

현재 수입제품의 주류는 유기 중간 제품임에 변함이 없으나, 범용수지의 수입비중도 상승하고 있다. 수출은 대부분 아시아지역으로, 제품은 범용수지 주체를 이루는 형태이다.

이러한 일본의 석유화학제품 무역동향을 아시아지역이 준 국내시장이라고 보면, 항상 국제적으로 강

력한 경쟁상대가 존재하는 본래 의미의 국제무역은 아니었다.

다시말해, 일본의 석유화학 산업은 나프타와 중간제품을 중동과 북미에서 수입해자동차·가전 등에 간접 소비되는 수출제품을 포함하는 거대한 국내시장에 합류시키고, 아시아지역도 준 국내시장화함으로써 거대한 설비능력의 고율조업이 가능했던 것이다.

그러나, 석유화학 제품이 사회생활의 필수 기초소재로 있는 이상 일정량의 수요가 발생하고 어느 정도의 경쟁력이 축적되면, 각각의 수요지역에서 생산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90년대를 특징지을 수 있는 한국의 극단적인 석유화학 설비 증설만이 아닌, 동남아 각국의 활발한 석유화학제품 국산화 움직임도 일본시장이 구조적으로 축소되고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93년의 석유화학제품 수급협의회 국제소위원회의 국제수급 동향 보고서에서도, 97년 수출입 균형을 제로로 예측하고 있다. 이는 수출 감소만이 아닌 주변국의 설비확대 혹은 엔고의 정착 등 수입의 증가요인으로, 순경제적으로는 중기, 수출입 균형이 제로에서 마이너스로 향하는 일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

석유화학의 구조변화

석유화학제품 수요는 소비재와 산업 재료의 양면이 있고, 기본적으로 그 나라(지역)의 산업구조와 소득수준 및 제품가격에 의존하고 있다.

예를들어, 공업재료로서의 수요가 적은 개발도상국과 중진국에서는 최종소비재가 중심이고, 초기의 수요확대에는 제품가격이 특히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공업국에서는 소비재와 똑같이 산업재료로서의 수요도 커, 가격과 함께 석유화학 제품이 갖는 기존재료에 없었던 새로운 기능이 중시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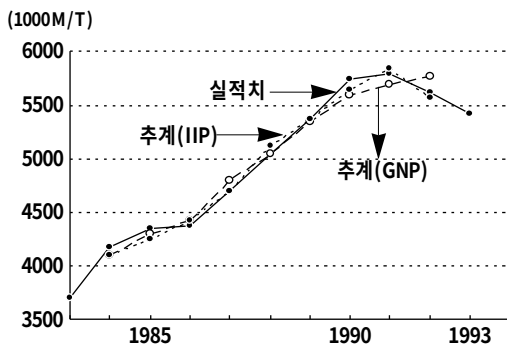
석유화학제품의 수요 성격

일본의 내수 확대는 당초 최종소비재로서 출발했으나, 즉시 산업재료 시장도 확대되었다. 일본은 85년 가격기준으로 실질 GNP 1조엔당 에틸렌 내수량(GNP원단위)이, 60년 1500톤에서 74년에는 10배인 1만7000톤대에 달했다. 74~75년은 제1차 오일쇼크에 따른 제품가격 상승이 원인으로, 그때까지의 급격한 수요확대에 브레이크가 걸리고 다시 점증노선으로 돌아온 단계에서 제2차 오일쇼크를 만났다.

그러나, 75년 이후 다소 변화가 있지만 80년대를 통해 에틸렌 GNP 원단위는 1만3000~1만4000톤의 범위로 계속되고, 쇼크의 영향이 없어진 단계에서는 소폭이지만 상승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 기간은 나프타 가격이 하락했고, GNP원단위의 하락은 가격 이외의 요인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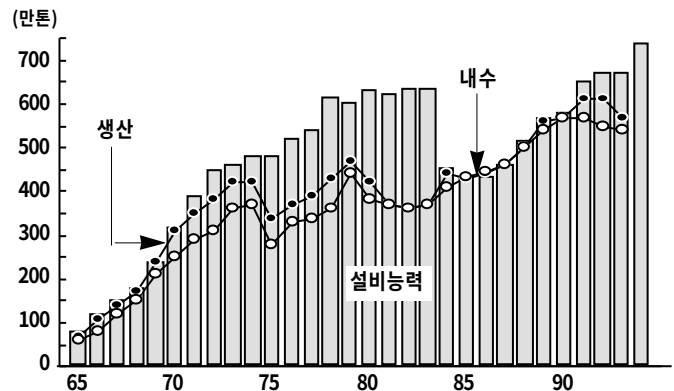
한편, 국민경제의 생산활동을 대표하고 있는 광공업 생산지수(90년 기준) 1포인트당 에틸렌 내수량(IIP원단위)은 GNP원단위의 움직임과 다르게 90년 이후에도 계속 상승하고 있다.

【그림8】 일본의 에틸렌 내수추이(제3기)



주) ED : 에틸렌 내수량 GNP : 85년 기준 IIP : 90년 기준
NRPY : 전년 실질국내나프타가격
• $\text{Log ED} = 1.790 + 1.5949 \text{ Log GNP} - 0.4187 \text{ Log NRPY}$
결정계수 = 0.7962 DW비 = 2.259
• $\text{Log ED} = 5.191 + 1.1362 \text{ Log GNP} - 0.2896 \text{ Log NRPY}$
결정계수 = 0.8855 DW비 = 2.772

【그림9】 일본의 에틸렌 수급추이



에틸렌 내수량은 82년 이후 91년까지 매년 플러스성장을 계속해 왔으나, 92년 10년만에 마이너스 성장으로 변했고, 93년에도 마이너스 성장이 확실하다. 92년 이후의 수요감퇴가 종래의 경기 순환적 성격인지, 혹은 전혀 다른 구조적 요인에 의한 장기적 변화인지가 최대의 문제로 주목을 끌고 있다. 내수의 변화에 실질GNP와 IIP를 선택, 가격요소로서 도매물가지수에서 처리한 실질 국내 나프타가격(Lag1년)을 변수로 에틸렌 내수량을 코크란오토캇법을 이용 활용한重回歸계산에서推計式을 구한 결과, 제1기는 나프타 가격이 안정했고 경제성장기에 있었기 때문에 GNP 혹은 IIP의 어느것을 사용해도 차가 없고, 각연도의 실적치·추계치 잔액차율도 차이가 없다는 극히 높은 적합성이 있는 추계식이 얻어진다.

그리고 이 기간의 에틸렌 내수 특징은 국민총지출의 수요항목중 민간 최종소비가 수요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고, 동시에 나프타 가격의 영향도 비교적 크다고 하는 수요성장 초기의 성격이 나타나고 있다.

제2기는 두번의 오일쇼크를 포함하기 때문에 GNP를 변수로 한 추계식의 정도가 현저하게 저하한다. 그러나, GNP수요항목의 민간설비 투자와 민간주택 투자를 변수로 생각하면 극히 높은 결정계수를 갖는 추계식이 얻어진다. 그리고 IIP에 의한 추계식은 비교적 높은 결정계수를 갖고 있으며, 동시에 가격의 영향도 극히 크다.

제3기는 기본적으로 제2기와 마찬가지로 설명변수로서는 GNP보다 IIP가 정도면에서 높고, 민간부문의 투자동향이 변수로서 상당히 뛰어나다.

더우기 특징적인 일은 나프타 가격항의 t치가 낮은 것(-0.10과 계수 자체도 극히 작기 때문에, 가격항을 벗어난 추계식의 결정계수가 더 좋다.

이상의 결과에서 보면, 일본의 에틸렌 내수는 제1차 오일쇼크에 이르기까지의 제1기에서는 고도 경제성장과 가격의 하락이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해 최종 소비부문을 중심으로 수요가 확대되고, 제2기 이후는 소비 분야에서의 성장이 일단락되고 설비·주택투자분야의 성장에 의존하게 되었다. 그리고 제3기에 이르러서는 가격의 영향도가 떨어지고 있다.

이처럼, 석유화학 제품의 내수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당초 잡화용 등의 소비재 중심에서 서서히 제품 고도화로 진척해 산업자재로서의 무게가 높아지고 있으며, 사회생활 내부에 기초자재로 자리잡고 국민소득이 대폭 증가한 결과, 수요에 대한 가격의 영향이 작아진다고 하는 변화를 가져 왔다.

내수전망

최근 석유화학제품 수요는 거시적으로 볼때 GNP보다도 광공업 생산(IPP)에 연결돼 변화하고 있다. 광공업 생산지수는 광공업 전체의 움직임을 생산량에서 찾아내고, 각제품 또는 작업종을 무게화해 지수화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기준시점(현재는 90년)에 대한 품목별 생산량의 신장율, 기준 시점에 있어서는, 부가가치로서 각품목을 무게화시키고, 가중평균으로 나타낸 것이다.

90년 기준 업종별 무게는 전기·수송기계등을 망라한 기계공업이 45%를 점하고, 화학공업이 10%, 철강업·금속제품·섬유공업·식료품공업 등이 각각 6%전후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광공업 생산은 무게를 갖는 기계공업의 영향이 극히 큰 것을 알수 있다. 기계공업은 전기기계가 19%, 일반기계 13%, 수송기계 12%, 정밀기계 1%로 구성 되어있다. 이러한 기계공업은 수출형을 중심으로 영향을 받고있는 산업이고, 그 결과 생산기지를 해외로 이전하고 있는 대표적인 산업이다.

90년을 100으로 한 광공업 생산지수는 91년 101.7까지 상승했으나, 92년에는 95.5로 6.1% 떨어졌고 93년 더욱 하락이 확실하다.

이 변화는 IPP의 무게에서 본 전기, 수송기계, 일반기계는 좀더 큰 요인으로 생각된다. 다시말해, 91년의 IPP 증가분 1.7포인트 속에는 이 양자가 1.4포인트를 점하고 있고, 92년 6.2포인트 감소도 똑같이 4.5포인트의 영향을 미쳤다.

이같이 조립산업 생산이 변화된다면, 소재산업의 출하도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당연하다. 현재 국제환경의 변화에서 판단한다면, 중기적으로 일본의 조립 가공산업은 해외 이전을 굳히는 일이 예측되고, 국내생산이 현재 이상으로 확대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곤란한 일이다. 이때문에, 광공업 생산도

하락을 계속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에틸렌 내수도 중기적으로는 정체기조가 계속되는 것을 각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일본의 석유화학 시장은 축소의 길을 걷고 있다. 92년 수요는 내수 580만톤과 준내수(아시아시장용 수출) 약50만톤등 630만톤이었으나, 93년은 내수 540만톤, 준내수 35만톤등 575만톤 전후까지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결과, 제품시세의 하락과 설비 가동을 저하에 따른 석유화학 기업의 수익은 최악의 상황으로 전락하는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올해 내수도 서서히 본격화하는 자동차·전기 등 거대한 수요산업의 해외이전 영향으로 정체될 것으로 전망되고, 엔고와 한국석유화학의 공세로 해외제품 수입이 증가, 무역균형은 악화될 것이다.

중기적으로는 일본 수요산업의 위축과 환경문제로 인한합성수지 재생, 소비자 의식의 변화등으로 내수 신장은 정체, 또는 감소하는 상황이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속에서 일본 석유화학 기업의 대응책은 무엇인가.

수급협회 국제소위원회가 93년 발표한 「일본 석유화학 산업의 국제화에 Border Less 시대의 생존전략을 찾아서」에서는, 기업은 거대시장과 성장분야 사업등 전개하고 독자적 기술 개발력을 배양해 핵심사업부분(Core Business)에 전력을 집중, 국제적 기업규모로 목표를 세워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수요에 알맞는 내수공급을 중시해 기업간의 과당경쟁 체질 개선과 공동화·집약화에 의한 국제 경쟁력의 강화를 제의했다.

89년 산업심의회화학공업부회 석유화학정책 소위원회는, 「90년대 일본 석유화학공업 및 그 시책의 방법」에서도 기업을 감싸고 있는 현실을 보면, 이제와서 산업기초로서 국제경쟁력을 논의해도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다시말해, 일본 석유화학 산업의 최대 과제는 국제경쟁력의 부족만이 아니고, 수급 균형의 실패인 것이다. 80년대 후반의 내수 확대는 버블을 인식할수 없는 상태에서 설비등 확대토록 했고, 여기에 기존시장의 구조적 축소가 문제인 것이다.

확실히 일본 석유화학 기업과 미국 대기업, 혹은 중동 산유국의 대형기업과의 생산비용을 비교한다면, 일본이 비교열위에 있는 것은 거의 틀림없다. 그러나, 이 비용차가 일본 전체 석유화학기업의 사업을 곤란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다.

만일, 90년대에 국내 수요산업의 변화로 에틸렌 내수가500만톤 정도에서 멈춰진 상태라고 가정하고, 일본 석유화학기업의 국제경쟁력이 열위인 채로 수입제품이 증가하는 환경이 계속되었다고 하자. 그러나 그 경우에도 일본이 항상 연간 100만톤을 넘는 제품을 수입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적다.

그리고, 잠정적으로 400만톤은 국내 기업의 시장으로 남는다. 이것은 일본의 석유화학기업이 수요 신장의 한정속에서 어떻게 기업간 경쟁에 대처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지가 중요과제인 것이다. 국제 경쟁력 문제가 제1의 문제는 아니다.

극단적으로 말해 400만톤의 내수(필요 공급량)를 가정하고 생산 능력이 450만톤이라면, 시세는 적정 수준으로 변천할 것이다. 이 때 국내시황을 국제적인 타당한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기업을 규모화 시켜야 하고, 기업의 거대화정도가 국제적으로 1사 100만톤이라 면 적절한 생산자수는 4~5사(그룹)가 된다. 현재, 일본 NCC 12사의 에틸렌 생산능력 700만톤도, 가까운 장래에 된다. 실질적으로 집약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위해 각 기업은 현재의 사업 합리화를 도모하면서 스스로 갖고 있는 자산에 따라 단독 혹은 타사와 협력하면서 단품 산업화, 종합 기업화, 최종제품분야 진출, 해외진출, 사업 전환 등 새로운 방향을 개척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기반을 잡고여력이 생긴 단계에서 본격적으로 국제사업을 계획할 것이다.

대응전략

석유화학 산업은 1개의 소비시장내에서 생산활동을 하고, 소위 로칼산업이라 하는 기본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석유화학 산업의 지역적인 변모를 살펴 보면, 제2차 대전후의 석유화학 창출기에는 기술적·경제적 요인때문에 생산국은 선진공업국에 한정되고, 이들이 세계 수요를 독점했다. 예를들어 65년에는 에

틸렌 생산의 약 90%를 일본·미국·유럽의 3지역에서 생산하였고 제1차 오일쇼크가 일어난 70년대 전반까지 그 비율은 변하지 않았다.

석유화학 산업은 전후의 첨단산업으로서 Status Symbol적 존재였던 것이다.

오일쇼크후 산유국이 새롭게 석유화학제품 공급국으로서 나타났고 석유가격이 국제적으로 평준화되는 한편, 개발도상국의 석유화학제품 수요가 급속하게 확대되고 석유화학 기술개발이 멈춰 기술적 주도권이 화학기업에서 엔지니어링기업으로 이동된 결과, 공업화로서 경제발전을 도모하고 있는 개발도상국의 석유화학 기업화가 용이한 환경으로 변화됐다.

일본은 석유화학산업의 출발시점에서 통상당국의 역할이 상당히 컸고 유효했던 것은 확실하다. 그러나, 그 후 확대기에 서 행한 육성책은 의도와는 다르게 수많은 생산자를 탄생시켰고, 업계내에 의타적인 의식 상태를 심어주어 현 상태에 이르게 하는 원인을 만든일도 사실이다.

이번 불황은 기본적으로 석유화학제품이 이미 성숙기에 들어간 기초자재·산업자재의 단계에 달하고 있는 것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고, 거기에 처음 국내산업의 구조의 변화를 경험한 결과, 탄생된 것이다.

따라서, 국내경기의 회복에 의해 다시 과거의 성숙계도로 돌아갈 종류의 성질은 아니다. 당분간은 축소균등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을 각오해야 할 시점인 것이다.

정책당국도 독금법의 허용범위, 주주회사 등 국제적인 수준에 맞춘 법적환경의 정비, 본격적 경쟁시대에 어울리는 규칙을 제정해 국내기업의 국제기업화를 지원해야 할 것이다.

<화학저널 1994/4/1>